

3월5일(월)/약5:13~18

**제목: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

야고보는 병자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 기도를 청하라고 하였다 (14절). 교회 장로들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나았다. 초대 교회 안에는 항상 신유의 은사가 있었다.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16절). 병 낫도록 기도하기 전에 서로 죄를 고백 하라고 하였다. 왜 병을 고치기 전에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유대인은 죄와 병을 항상 동일시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동일시 할 수 없다. 어떻게 비염이나 치질의 원인이 죄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까지는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어쨌든 기도의 힘에는 한계가 없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이 기도의 위력의 모범으로써 인용하였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간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내렸다 (17~18절). 기도는 이런 것이다. 지구 전체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 우리는 기도로 지구 전체를 내 발 아래에 둘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세상 속으로 내려오는 통로인 것이 분명하다.

3월6일(화)/약5:19~20

**제목: 확실히 잘사는 비결**

야고보서의 마지막 두 절은 독자들에게 매우 큰 감명을 주고 마치고 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꼭 알아두라고 강조한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을 전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면 그 죄인의 영혼도 죽음에서 건짐 받을 뿐 아니라 그 전도자 자신도 큰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19~20절).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영혼도 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위대한 진리이다.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12:3)고 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단4:16)고 하였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은총과 선물을 주시는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 진리를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보면 10명의 사람을 전도한 사람과 3명의 사람을 전도한 사람의 삶의 질이 분명히 다를 수 밖에 없다.

3월7일(수)/벤전 1:1~2

**제목: 예정론**

베드로전서는 이방인에게 보낸 베드로의 첫번째 편지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벤전 2:10)라는 말은 이방인을 가리킨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지옥의 불의 뿔감으로 만들었다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이방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 (2절)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온 인류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다. 또한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절) 즉, 모국을 떠나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도 이 편지를 썼다. 어쨌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은 아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2절) 구성된 자들이다.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오래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탄생된 자들이다. 우리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발탁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자들이다.

3월8일(목)/벤전 1:3~12 (1)

**제목: 재난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6절)라는 말은 곧 근심할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박해의 태풍이 불어 닥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머지않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기 무척 힘든 상황이 벌어 질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급히 붓을 들고 곧 최악의 상태로 들어갈 형제들을 격려하고 있다. 베드로는 곧 있을 재난은 "시험" (6절) 즉, 시련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6절). 시련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베드로는 그들은 이 시련을 통하여 정금보다 더 강하고 깨끗한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7절). 또 베드로는 이 시련을 잘 통과 하고 나면 마지막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7절). 시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때문에 잘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 편지를 읽은 독자들은 큰 힘을 얻었을 것이다. 살기 어렵고 믿기 곤란한 기가막힌 현실에 부딪힐 때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장래'가 있다는 사실을 ... 이 시련 후에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정금' 수준으로 변할 것이고 그래서 훗날에는 더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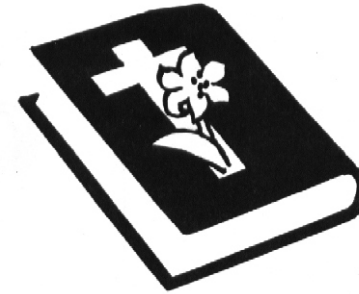
3월9일(금)/벤전1:3~12(2)

**제목: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3년간 함께 생활을 하였다. 그런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독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다(8절).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임한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선지자들이 받았으며, 어떻게 전해주었는가를 말한다. 우선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구원의 메시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했다(10절).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였다(11절). 이것이 바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선지자들의 이 직무는 천사들도 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직무이다(12절). 성령님은 선지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탐구하도록 하였고, 또 그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셨다(12절). 선지자들은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얻었다. 그들은 자기 의식 없이 무아지경에서 성경을 기록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펜이나 약기가 아니었다. 성령님은 그들이 연구할 때 함께 하셨다. 성령님은 항상 인간의 탐구심과 동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하며, 진리를 탐구하고자 할 때 오셔서 우리를 충족시켜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엄청난 보화를 캐내는 작업과 같은 것이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고잔동 647-2)

☎485-0955, 401-2370(FAX) [www.ansan1.org](http://www.ansan1.org)